95

사회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로 달린다

3 -MAY 2 6
Copy ____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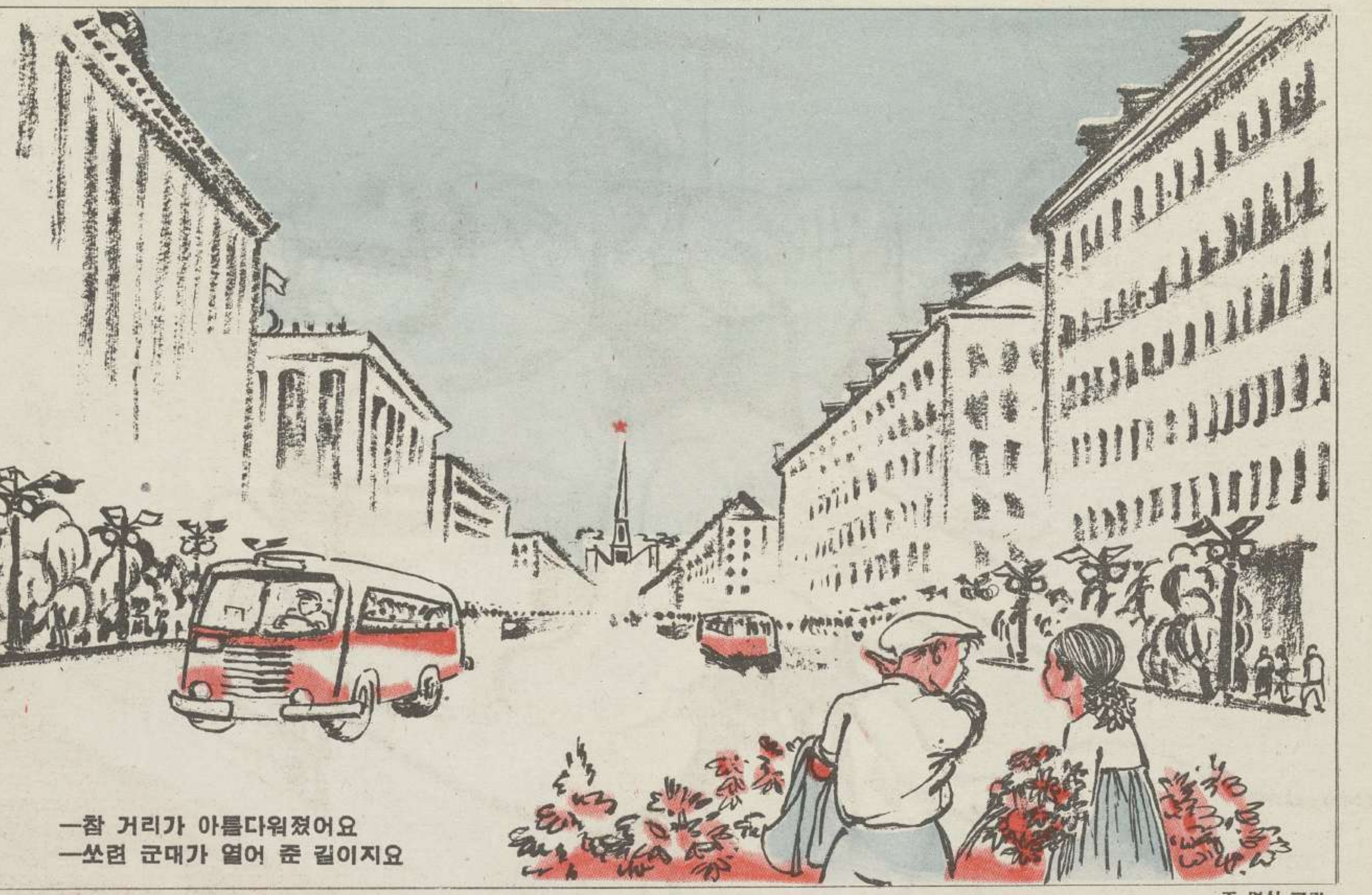
택 그림

8월호

1958년 (93)

활살

해방탑이 보이는 거리에서



—참 거리가 아름다워졌어요
—쏘련 군대가 열어 준 길이지요

조 명식 그림

인민 주권 밑에

—빠른 건 비행기죠
—평양 건설도 빠르지요

—옛날에는 여기는 가물이 들면 못먹던 데란다

—자그만치 20메터만 주세요

미제 침략 밑에

—오물세, 도로포장세 어서 내 놔!

—가물이 미국 잉여 농산물 가격을 더 올리는군요

—사흘 굶었는데 다만 얼마라도 쳐 주세요

송 용남 그림

미군 짚차와 소년

오 정삼

최라고 하는 어느 한 작가는 미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구할 길 없는 남조선 현실의 한 측면인 절량 농가의 처참상을 괴뢰 리 승만 도당들의 악랄한 술책인 《선거》 기만극을 통하여 폭로하여 주고 있다.

× ×

아산만을 낀 어느 염전(塩田)마을—희뿌여한 하늘이, 한다리를 바다에 적시고 있는 회문산(回文山)쪽으로 축 처졌다. 바로 그 처진 하늘 아래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히 들려 왔다.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사랑하는 절량 농가 여러분! 우리는 무력 통일의 길만이 절량 농가를 일소하는…)

선거 선전에 날뛰는 확성기 소리는 가뭄 때문에 기름기 없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 밭과 풀 한대 없는 동산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용봉 고개 등성이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얗게 깔리어 저마다 칡뿌리 캐기에 바빴다.

동수는 마을 사람들과 좀 동떠러진 산탁에서 뻗어나간 칡뿌리를 호미로 뒤지고 있었다. 허리가 까부라들게 조여드는 허기'증을 참다 못해 벼랑 몰바위 우에 활짝 핀 진달래를 마구 따먹은 것이 배가 꿀꿀거리고 입안이 텁텁한데다가 속이 메스꺼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눈이 뒤통수로 죄여 들어가고 하늘이 노랗게 뵈였다.

고개 아래'길로 먼지를 피우며 미군 짚차 꽁무니를 맞들고 쏜살 같이 질주하는 선거차에서는 선전대원의 왱가리 목청이 바람을 타고 끊키며 들려 오고 있었다.

동수는 미군 짚차를 보자 불현 듯 저도 모르게 이를 맞물었다. 지금 그 가물가물한 눈망울 속에는 자기 아버지와 뒷집 옥녀를 깔아 죽인 미국놈이, 돌다리 창술을 쏘아 죽인 양키의 그 징글마진 얼굴이 떠올랐다. 기승을 부리며 달리는 선거차와 미군 짚차를 물끄럼이 바라보고 있는 산등성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저주의 빛이 돌고 있었다.

동수는 지금 집에서——끌찍거리고 누워 있는 할머니와 다섯살 잡이인 동생 양순이와 그리고 할머니의 홀죽한 젖가슴을 오르내리며 칭얼거리고 있을 젖먹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염전에 나가서 날품팔이에 지쳐 등허리가 휘여진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가물거렸다.

동수는 어린 마음에도 더 참을 수가 없는 울화를 풀려는 듯이 입을 악물고 손을 다우쳐 칡뿌리를 캐고 또 캐였다.

먼바루 맞다 드린 칡뿌리는 바구니에 하나 가득 차 들어 갔다. 이번에는 칡뿌리 몇 토막을 씹은 것이 입언저리가 시컴해진 턱이 저리게 아파 났고 팔 다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그는 기진한 몸을 가누기 힘들어 산허리에 벌떡 드러 누어 버렸다. 희뿌연 하늘이 내리 짓눌르는것만 같았다.

절량 농가 일소의 미명을 내걸고 선거 놀음에 날뛰고 있는 이자들은 아침부터 주지 육림에 푹 빠저 버린채 기승을 부리며 확성기를 마구 불어대고 있었다. 선거 운동원도, 운전수도 취하고 차까지 몽땅 취해 버리고 말았다.

《파연 절량 농가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귀여운 자제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인재가 파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다름 아닌 자유당 공천…공약 3장을…》한바퀴 돌고 난 선거차는 이렇게 웨치며 비틀거리고 또 지나 갔다.

《개소리 마라!》하고 건너편 산등성의 마을 사람들이 공지에 먼지를 일쿠며 질주하는 선거차를 향하고 질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동수는 별안간 술재강 생각이 났다. 그것을 그저 꿀꺽꿀꺽 드리 마셨으면 살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를 졸졸 따라 다니는 한반인 양조장 아들 기준을 찾아갈 양으로 벌떡 일어 났다. 술재강도 요즘은 부쩍 시세가 올라 갔다. 술을 빚었다는 소문만 나면 부황증에 얼굴이 노랗게 부은 부락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조장 앞문에 줄을 지어 늘어섰다.

맛 좋고 값 눅고
풍부한 식료품을

—부엌 일은 내가 덜어 드리지요

조 명식 그림

동수는 칡뿌리를 무슨 신기한 것으로 아는 기준이를 찾아 가는대로 칡뿌리와 술재강과 바꾸기로 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술재강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랴 싶었다. 어머니의 재간으로도 여간만 얻기 힘들지 않은 그러한 귀물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내가 얻어가지고 간단 말이다. 그러면 또 양순이도 펄펄 뛰고 좋아할 것이다. 젖먹이도 몇목음 멕이고 어머니도 먹고 나도 먹고, 온 집안이 다 먹는다. 나두 제법 그런 일을 다 할 줄 알게 되였구나!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 동수는 기준이에게서 술재강을 한 항아리 받어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에라도 날아 올라갈 기쁨이였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자기를 두고두고 얼마나 칭찬을 해 줄것인가! 시큼한 냄새가 코를 막 찔렀다. 입에서 군침이 돌고 배 속에서 쪼루룩 소리가 났다. 그는 항아리에 코를 박고 후들어 마셨다. 참말 맛이 좋구나! 한 목음 또 마셨다. 시큼 털털하나 역시 괜찮았다. 동수는 자기가 자랑스러워 총총 걸음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뿐이였다. 술 취한 미군 짚차가 비틀거리며 내닫는 선거차를 앞질러 동수 앞으로 질풍처럼 달려 오고 있었다. 선거차에서는 여전히 《절량 농민들…》하고 술 취한 소리로 웨치고 있었다. 이윽고 길 복판을 갈지자로 달려 오든 미군 짚차 운전수는 피하는 동수가 강아지로 보였다. 그리하여 핸들을 꺾어 그를 깔아 앉고 나서 날새게 공지를 내빼고 있었다.

《악!》

동수의 비명과 함께 몽당이 풀석거리는 신작로에 항아리가 동시에 박살이 났다. 이번에는 '미군 짚차를 뒤따라 취한 선전차가 행길'가에 흐터진 술재강을 짓눌르며 비틀비틀 하고 지나 갔다. 실로 눈 깜짝할 순간의 일이였다.

귀렬이 난 논바닥에 동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나가 딩굴고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리 사라지는 미군 짚차를 쫓고 있던 선전차는 여전히 취한 소리로 확성기를 높이 울리고 있었다.

《…인, 인구의 7할을 점…점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장할 참다운 애…애국자…미국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여 모두다 깨끗한 한표를…》

미제국주의 침략자의 비호 하에 남조선을 생지옥의 토탄 속에 몰아 넣은 괴뢰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은 권세와 지위와 탐욕을 위하여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악랄한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남조선 인민들의 불행은 오직 조국 남반부 땅에서 미제 침략군이 물러가는 그날에야 구원할 수 있다.

저마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원 광수 그림

백기주 일가의 운명

류 계환

얼마 전에 서울서 룡산구 보관동에서 29세 되는 괴뢰군 휴가병의 자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신음하던 중에 이웃 사람들에게 발견되여 응급 처치를 받고 다행히도 생명을 구원 받았다.

이틀날 서울 장안의 몇 개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렇지 않았던들 항간의 수 많은 비극의 에피소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사건은 누구도 모르게 어둠속에 묻히여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생활고가 비저낸 비극이라고 신문에는 간단히 보도되였는데 많은 독자들은 그 기사를 눈여겨 보지도 않았다.

하기야 세상에서 해괴망칙한 일들이 례사로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에서 한 사람의 휴가병이 목숨을 끊으려던 사건은 극히 《평범한 일》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했고 아낙네들은 한숨을 지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백 기주 (이것이 그 휴가병의 이름이다) 는 지게'군이였다. 그는 7년 전에 부친이 돌아간 후 년로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 받아 눈비를 가리지 않고 수년 동안을 하루 같이 거리에 나가서 삯짐을 졌다. 그것은 남달리 비참한 직업이였으나 그래도 그것으로 세 식구의 생명을 지탱해 왔다.

백 기주 일가에 불행은 돌연히 닥쳐 왔다. 이 집의 주추돌이며 유일한 생계의 담당자인 그는 어느 날 거리에서 <홀치기>에 걸려 그 길로 괴뢰군에 끌려 갔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이였다. 그는 론산에 있는 신병 훈련소를 거쳐 의정부 어느 부대에 배치되였다.

그가 부대에서 겪은 고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기로 하자. 다만 굶주림과 학대와 모진 고역을 참다 못해 적지 않은 그의 동료들이 부대에서 도주하려다가 체포되여 군사 재판에 회부되였다는 것과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신체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손상하여 제대를 노리는 <자상 사건>들이 그가 속해 있던 부대 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는 것만 이야기해 두자.

그는 부대에서 휴가 받기 1년 전부터 련대장 집의 사병 노릇을 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련대장 부처의 공'적 사'적 심부름'군 노릇을 하고…군대살이라기보다 흡사 그것은 지주'집에 고용된 머슴살이와도 같은 것이였다.

그러나 이런 고용살이의 덕택으로 그는 딴 병사들이 좀처럼 바랄 수 없는 <특전>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입대>한지 4년만에 처음으로 휴가라는 것을 받고 고향에 돌아 갈 수 있게 되였기 때문이다.

휴가를 받았대야 그가 기거하던 보관동 언덕바지 밑에 게딱지처럼 누러붙은 초라한 판자집은 그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립던 어머니와 동생을 상봉하게 된 것은 더 없이 반가운 일이였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 와서 그는 너무나도 뜻밖의 정경에 부닥쳤다.

어머니는 중병으로 누워 있고 동생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 않은가!

그가 군대에 끌려간 후 그의 동생 기철이는 학교를 그만 두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늙은 어머니를 혼자서 보살펴 왔다. 그러다가 그의 형이 귀가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밤중에 거리에서 차에 치켜 죽었던 것이다. 당시 차 임자는 종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체 옆에 미군이 사용하는 빈 휘발유 통이 굴러 다니던 것으로 보아 미군 트럭에 치웠으리라는 것이 옆집 아주머니들의 일치한 공론이였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철이는 병석에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한 그릇의 죽이나마 대접할려고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차에 치켰다는 것이다. 경찰이 소년의 시체를 검사할 때 그의 손에는 깨여진 죽 그릇이 아직도 쥐여져 있었고 그릇에서 쏟아진 죽이 선혈과 함께 차디찬 아스팔트 우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오랜 영양 실조에 기인하는 것이였다. 기철의 죽음은 어머니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으니 그는 오직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으로서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때 기주는 집에 돌아 왔다. 집에는 식량도 약도 없었다. 기주는 집에 돌아 온 그 날부터 홀로 남은 병중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구호를 요청하여 동, 구에는 물론 시청에까지 찾아 가 보았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를 상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약 한첩 써 보지 못하고 큰아들이 돌아 온지 2주일만에 불'기 하나 없는 싸늘한 방안에서 아들의 손목을 붓잡고 운명하였다. 동생과 어머니를 전후해서 잃은 백 기주는 이처럼 혹독한 불행을 그에게 가져다 준 세상이 무한히 저주롭고 원망스러웠다. 괴뢰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을 믿고 모진 고통을 참아 왔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오늘 그에게 남조선에서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바랄 것이 있으랴. 그래서 그는 고민하던 끝에 죽엄을 결심하여 나섰던 것이다…

그가 자살의 길을 택한 래력은 대체로 이러한 것이였다.

그가 구원 받은 것은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였다. 죽어서는 안되며 또 죽을 수도 없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놈이 누구인가를 그는 알았을 것이다. 철천의 원쑤들과 싸울 생각은 않고 죽다니 될 말인가!

더욱 흉악해 졌다

백 인균 그림

미제는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 무기 기지화 함으로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의 념원에 더욱 발악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테로협잡 무효국회

오 흥택

미국제 총칼로 날조된 제 4대 《민의원》은 개업 첫날부터 싸움질에 몰두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이 쓴 것처럼 《싸움으로 시작하여 싸움으로 끝난 란장판》이였던 제 3대 《민의원》의 바통을 넘겨 받은 이 번 괴뢰 《국회》도 례외 없이 싸우는 것으로부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지난 번 《국회》에서 이름을 날린 싸움패, 또 깡패의 두목질한 덕택으로 한 몫 본 테로패, 탐욕스러운 정상배, 미국 첩보 기관에서 훈련된 깽의 졸개패 등 그럴듯한 위인들을 골간으로 해서 영업을 시작했으니 이번 괴뢰 《국회》도 자기 존재를 끝 맺을 때까지 무던히 싸울 것은 틀림 없으나 개점초부터 시작한 이 번 싸움만은 과연 그들 다운 데가 있어 가관이다.

싸움의 발단은 제아비를 찾을 내기부터 시작되였다.

즉 남조선 《국회》가 테로 폭압으로 생겨 났느냐, 사기 협잡으로 생겨 났느냐 하는 싸움이다.

자유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테로 협잡이 있었다고 강박하며 민주당은 자유당패들이 테로 협잡으로 당선됐다고 고함쳤다.

며칠 채 두고 그들 간에 테로 협잡을 가지구 싸우는 것으로 보아 경중은 다르지만 서로 테로 협잡을 한 것만은 확실하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거는 금력과 폭력 등을 주도 면밀하게 배합해서 부정 행위로 일관했다… 선거에서 총검을 앞세우고 몽둥이 선거를 한 자는 마땅히 역적 중의 역적이다》하고 기염을 토한 후에 리 승만의 졸개로 《국회 의장》 감투를 강탈하고 있는 리 기붕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나는 지금 리 기붕 의장의 사회를 받고 있는 몸이지만 리 기붕 씨는 확실히 당선이 안 되였다고 확신한다…도대체 무투표 당선이란 뭐냐, 국회 의장 리 기붕 씨의 자격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의장》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제씨들을 하나씩 자격 심사를 한다면 《국회》는 개업이자 폐업일수밖에 없다.

허나 리 기붕의 자격 심사만은 할 건덕지가 없다. 원래 그 협잡 선거마저도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조작허구 《국회 의장》 자리까지 강탈했으니 뭘 가지구 심사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민주당 《의원》은 《대한 민국》까지도 강도 국가라구 갈파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자유당은 자유당 대로 입이 있노라고 싸움을 걸었다.

《그래 민주당은 협잡과 폭력을 안했단 말이냐, 충남 부여 갑구에서 민주당 선거 운동원이 자유당 운동원을 구타 치사케 한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민주당도 테로 협잡을 한 것임에 틀림 없다. 허다면 다 같이 협잡 테로를 했으니 이번 《국회》는 협잡 《국회》요, 테로 《국회》요, 무효《국회》다.

이 선포는 다름 아닌 남조선 《민의원》 제씨들이 한 것이니 후에 가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을 것이다.

리 승만까지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테로 협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만 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식으로 지껄였고 《내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있는데 좀 있은 테로 협잡이 뭐냐는 식으로 짖어댔다. 허다면 그들까지두 테로 협잡이 있다는 사실만은 다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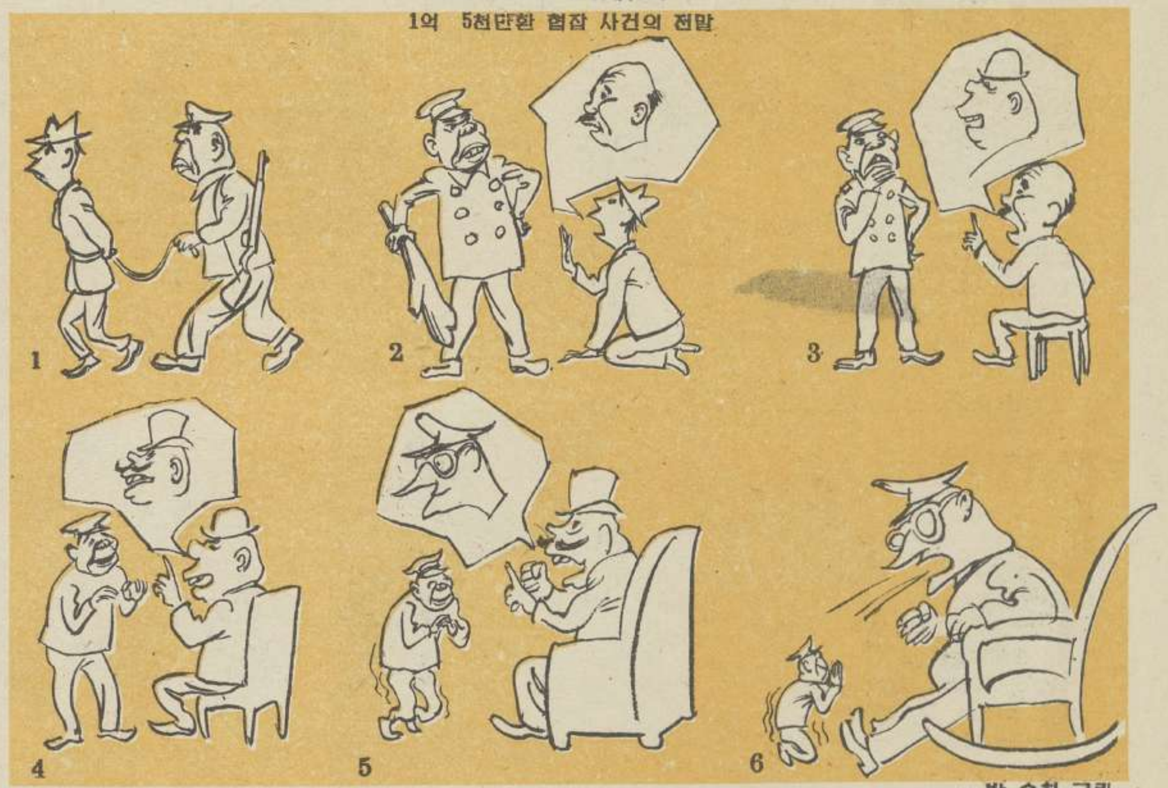
바로 이래서 《국회》는 《국회》의 애비가 테로 폭압이냐 사기 협잡이냐 하고 연 사흘도 넘게 옥신각신 싸웠다.

《구급 대책》

리 영춘 그림

사건은 커졌다—

1억 5천만환 협잡 사건의 전말



박 승히 그림

누가 테로 협잡을 더 했느냐 하는 것은 경찰과 테로단을 직접 장악한 리 승만패들이였다는 것은 더 물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속이 드려다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제아비를 감추고 있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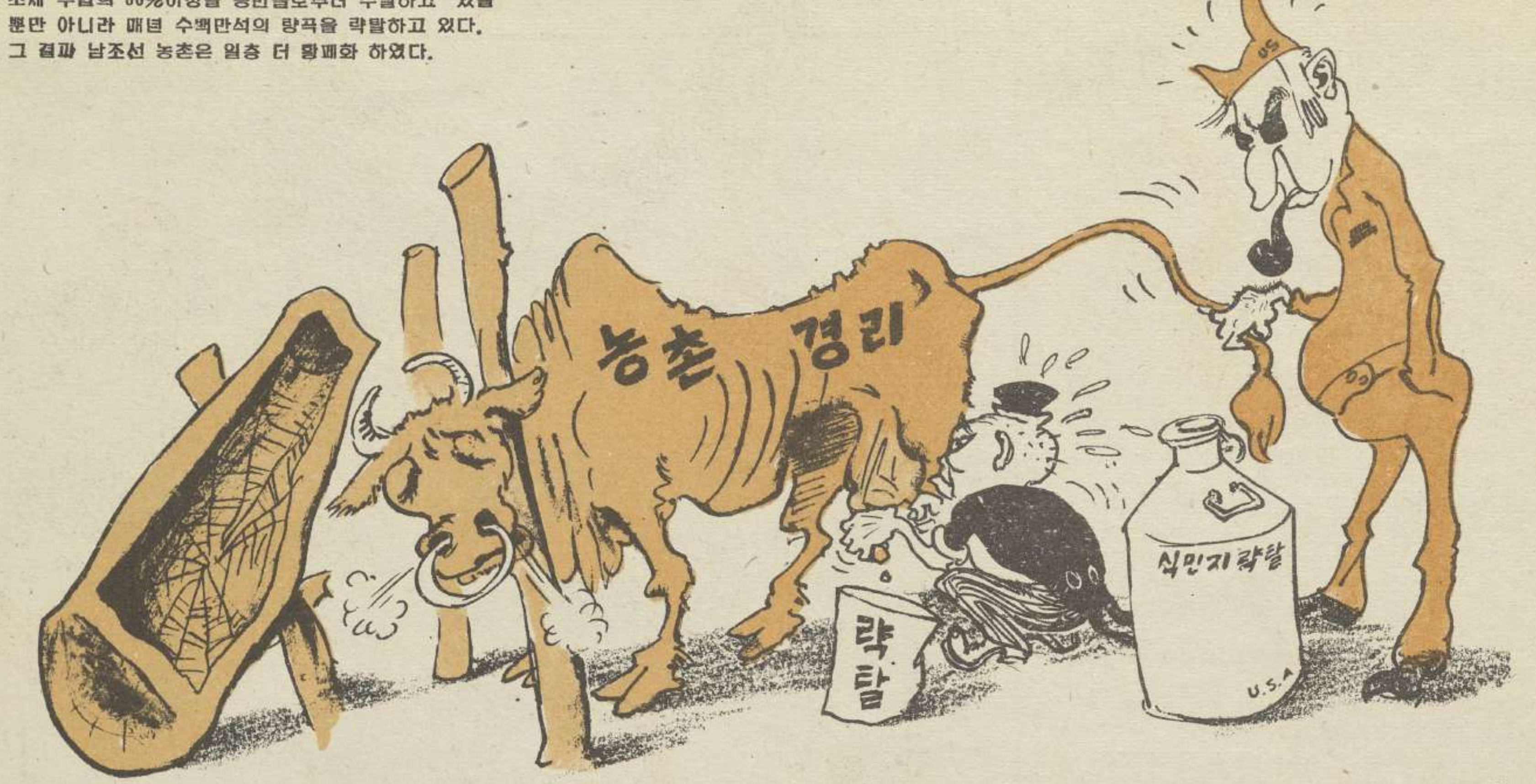
역시 그들이 명명한 바와 같이 《하늘 아래 첫 국회》라고 하는 이 《대한 민국》《국회》를 만들어 낸 미제 침략자들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사실이다.

총기를 든 두발 가진 짐승인 미군 강도의 죄행을 감추고 테로 협잡만을 가지고 《국회 의원》 제씨들이 사흘이 아니라 3백 날 싸워 봤자 끝이 날 리가 없다.

털끝만치라도 미군 강도의 식민지 양아들 노릇이나 혹은 머슴'군 노릇을 하는 것이 창피한 것을 안다면 응당히 그 강도들을 반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리 승만의 농업 정책

군비 확장에 혈안이 되여 있는 미제와 리승만 도배는 조세 수입의 80%이상을 농민들로부터 수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만석의 량곡을 략탈하고 있다. 그 결과 남조선 농촌은 일층 더 황폐화 하였다.



백 인균 그림

죽엄의 땅 남조선에서

최영근 그림

마 술

송용남 그림

미제와 리승만 도당은 남조선 민족 산업으로 하여금 미국 잉여 생산품에 의존케 하며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을 조성하며 략탈적인 가격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 독점체에의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류행어 만화사건

"경찰 3인조"

괴뢰 경찰들이 서로 공모하고 위협 공갈 회유의 방법으로 인민의 금품을 략탈하는 일이 류행하고 있는 바 이를 세칭《경찰 3인조》라고 한다.

뱅가드 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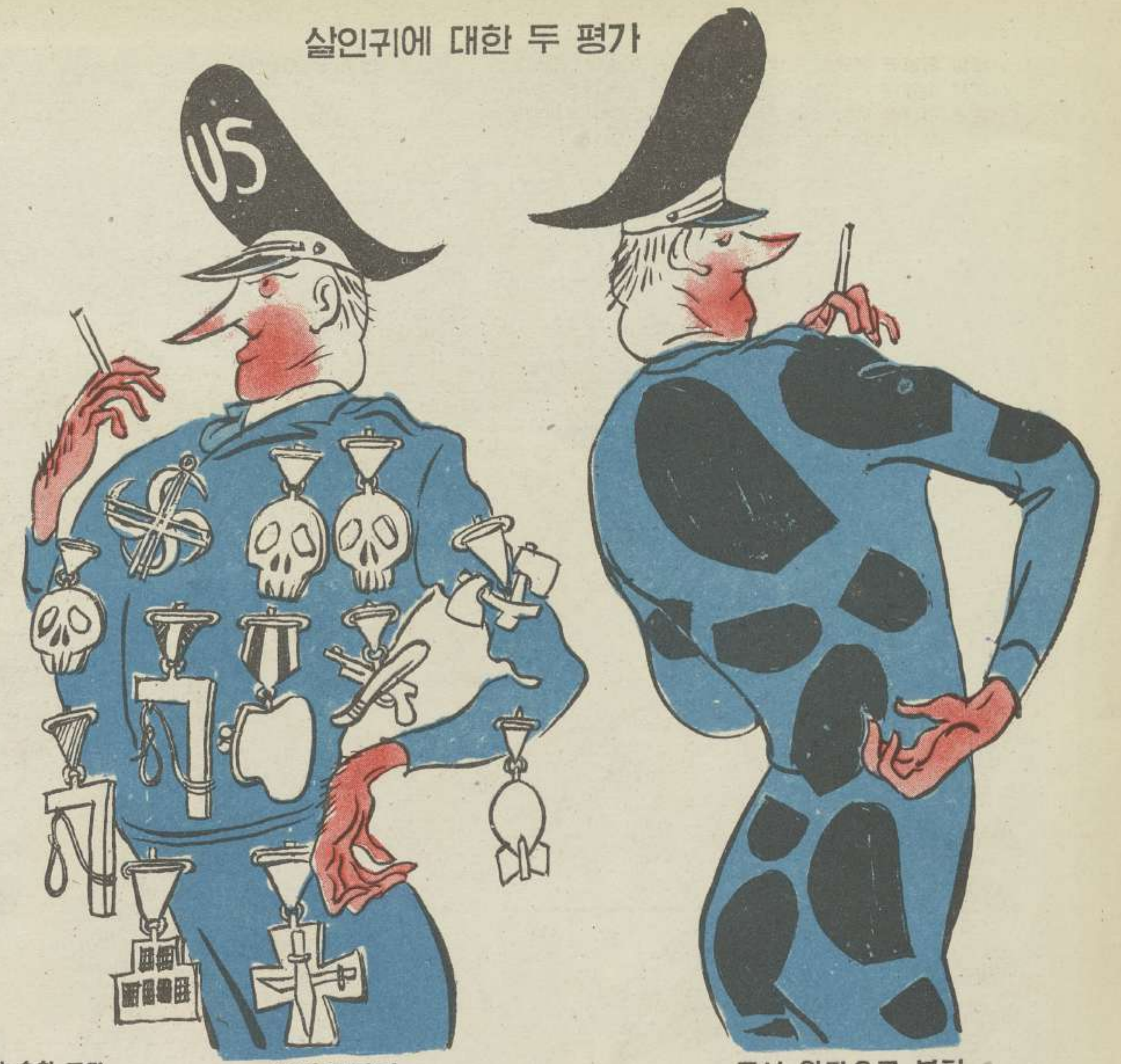
박승히 그림

남조선 농촌 풍경

백 인균 그림

절량농민—밥을 먹었더면 저기 올라가 송기도 베낄수 있겠건만…

살인귀에 대한 두 평가



박 승히 그림

월가로부터 　　　　조선 인민으로 부터

드러난 협잡

신 홍 순

《국회》의장 리 기붕이의 무투표 당선을 비롯하여 무데기표, 환표 등으로 억지 당선된 《국회》 의원들의 협잡 선거 사건이 계속 들어 나서 가짜니 뭐니 하고 《국회》에서까지도 여야간의 싸움이 벌어진 이 때 이 번엔 또 《경북 영주 사건》이라는 협잡 행위가 나불거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영주에서 자유당 출신으로 당선이 된 박 모의 집에 양 가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찾아 왔다.

《그동안 저는 다섯 번이나 찾아 뵈려 왔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음 취직 건 말이지? 글쎄 지금 난다 긴다 하는 대학 졸업생들도 일 자리를 못 구해 허덕허덕 하는 판에 중학 간판쯤 가지구 맥을 추나? 더구나 보통 자리도 아니구 장짜 아니면 안허겠다니 그게 어디 수월해야 말이지?》

《아 지금 일자 무식두 빽만 있으면 과장 자리에 앉아서 호령만 텅텅 허는데 안 해 주시려니까 그렇지 국회 의원 소개루 안 될게 뭡니까? 원》

《좀 더 기다려 보게, 내가 인제 적산불하 공장 같은 거래두 하나 락찰되는 날엔 자넬 모른척 허겠나?》

《박선생! 난 이담 보자는 거 반갑잖습니다. 생일날 잘 먹으려 사흘을 굶으니까 죽더란 격으루 나도 먹고 살아얄게 아닙니까?》

《이 사람아, 안 되는 취직을 낸들 어떡허란 말인가?》

《그럼 취직은 그만 두십쇼. 현금으로 회계 하십시다》

《현금으루? 아니 돈은 무슨 돈?》

《이렇게 딱 잡아 떼깁니까? 선거 때 뭐라구 하셨습니까? 〈어떤 수단으로던지 당선만 되게 해 준다면 뭐든지 요구대로 들어 주겠다〉구 허셨죠?》

《그런데?》

《그러니 국회 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공로야 아서야죠, 경쟁자인 무소속 립후보자의 찬성표 2천 매를 슬쩍 빼 돌리지 않았더면 박 선생이 어림이나 있습니까?》

《자네 혼자 그 일을 했나? 선거 위원장이 다 이리 왈 저리왈 했으니 됐지》

《아니 그럼 싹싹 허시겠단 말씀이요?》

《그러기에 내가 되거리로 100만 환을 내놓은게 아닌가? 이건 뭐 두구두구 울궈 먹을 작정인가?》

《무데기표 한 장에도 공정 가격이 1천 환입니다. 1천 환! 두말 마시고 백만환 하나만 더 쓰십쇼!》

《백만 환이 뉘집 아이 이름인 줄 아나? 흐참!》

《좋쇠다!》 양가는 무엇을 결심한 듯이 휙 나가버렸다.

양가는 그 길로 전번에 억울하게 락선된 무소속 출신 김 모를 찾아 가서 그의 찬성표 2천매 빼돌린 사건을 다 털어 놓았다.

김은 《그러면 그렇지, 옳다 됐다!》 하고 당장 경찰 서장을 찾아 가서 자유당 출신 박의 당선 무효를 말하고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뭣이? 임마! 그런 터무니 없는 류언비어를 어따 퍼뜨리구 댕겨? 미친 자식 같으니!》

서장은 다짜고짜로 욕설을 퍼 붓더니 단단히 취조하라고 부하에게 넘겼다.

그들은 벌써 자유당 출신과 내통이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김은 파 김치가 되여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도무지 격분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일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서울로 갔다.

그가 덕수궁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여보 여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사복을 한 영주 경찰서 경관이였다.

《아하 이놈들이 기밀을 알아 채고 미행을 했구나!》 속으로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피신할 도리가 없었다.

《왜 그러시우?》

《여긴 뭣허러 왔어?》

《남이야 아무걸 허러 왔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 잔소리 말구 가자!》

《어디루 가잔 말이요?》

《치안국으루 가》

《치안국이요? 아니 게는 뭣허러 가요?》

《치안국 특정과장의 호출이야!》

《내가 무얼 잘 못 했다구 호출이란 말요?》

《잔소리 말구 가지 못할가? 지명 수배다 지명수배!》

《난 못 가겠소! 당신은 나허구 무슨 혐의가 있어 예까지 쫓아 와 야단이요?》

《못 가? 임마! 서류 내놔!》 경찰은 권총을 빼 들었다.

위기에 직면한 김은 날세게 사복 경관을 메따치고 뺑소니를 쳤다.

탕! 탕! 탕! 련거퍼 헛총 소리가 요란스레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데 없는 총소리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 새끼 강도로구나!》

《아 아니올시다. 영주 경찰서 경관이 올시다》

《뭐 경관? 거짓말 마라! 망할 자식? 백주에 강도질을 해?》

군중들은 와——달려 들어 뭇매를 퍼 부었다. 뭇 발'길 속에서 〈어유! 살려 줍쇼!〉 소리만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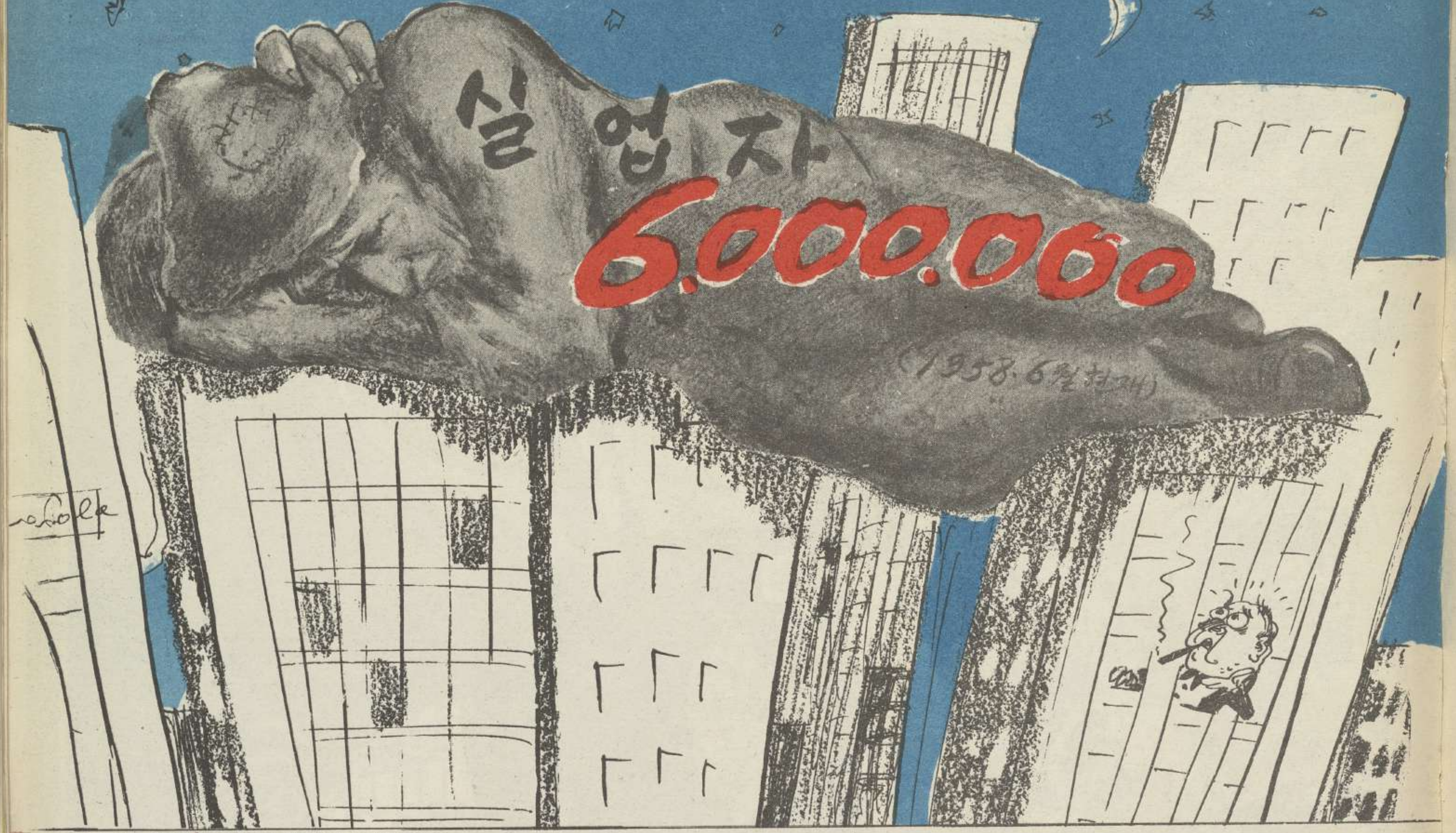
이튿날 신문에는 〈백주의 권총 사건〉이란 큰 표제 아래 영주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였다.

남조선 미군만행지도

최영근
조병식 그림

위기는 닥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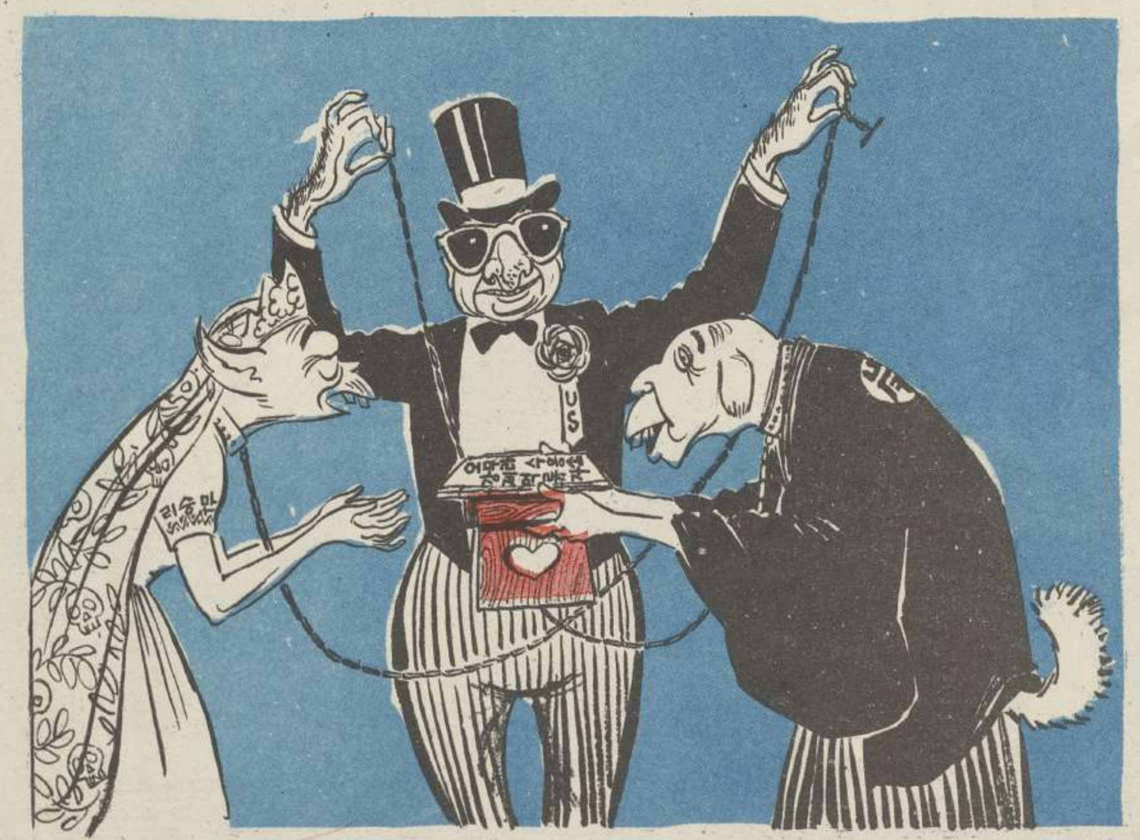
박 인균 그림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금년 가을까지에는 1백만명 내지 2백만명이 더 증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제 학자 펠로는 《미국의 로동 계급은 침묵을 계속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독점 자본가—저자가 깨기만 하는 날이면 큰 야단일렌데…

살인귀들의 야합



기시와 리 승만 도당은 미제 조종하에 《한일 회담》의 흥정감으로 오무라 수용소에 감금 돼 있는 조선 공민을 남조선으로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투전은 봉창에 망한다

유 항림

일견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보이는 리챠드슨 씨의 가정에도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 더글러스 항공기 회사의 대주주이며 미 국무성의 고관인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랴고 생각할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니 어찌하랴! 그의 외아들이 난봉이 났다.

대학생인 그의 아들이 미국의 보통 대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술주정뱅이가 됐다든가 또는 치정 관계로 얼마간 추문을 퍼뜨렸다든가 한다면 리챠드슨 씨가 걱정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박은 문제가 다르다. 술이야 제아무리 먹는다 해도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 먹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도박은 하루'밤에도 전 재산을 몽땅 털어 먹을 수도 있지 않는가?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서재로 불렀다.

《마크야, 말해 봐라. 내가 네게 주는 용돈이 아직 적단 말이냐?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아들은 대답이 없다.

《전 번엔 만 여 딸라의 유'가 증권을 몰래 내다 팔아 먹었지?! 그리구 얼마 전엔 학생 신분에 주제 넘게 수형을 써 넣고 1만 5천 딸라나 고리 대금을 썼지?! 그리구두 또 부족해서 오늘 저녁엔 어머니의 보석함을 송두리채 들어 내려다가 발각됐다니 그게 무슨 신사답지 못한 짓이냐?》

아들은 역시 대답이 없다.

《마크야, 대관절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니? 돈도 돈이려니와 네가 장차 어떤 위인이 되려는지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구나!》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국무성에 들어 가서는 앞으로 국무 장관이 되려는 것이 저의 리상입니다》

《오냐, 그건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큰 포부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 나두 젊었을 때는 도박두 좀 해 봤다마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벌써 수만 딸라를 잃었는데 인제 그냥 그만 둘 수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밑천을 주십쇼 봉창을 해야겠습니다》

《마크야,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투전은 봉창에 망한다는 말을 모르느냐?》

《그렇지만 어떻게 봉창을 하지 않고 그만 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투전에 그만큼 돈을 잃었으면 네게는 좋은 교훈이 됐을 거다. 비싼 월사금을 문 셈 치고 단념해라》

《저는 장래 국무장관이 되려구 합니다. 봉창도 못하고야 미국의 국무장관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잃을 수록 단념하지 않고 봉창을 하러 드는 것이 우리 국무성의 전통이니까 말이지요. 조선 전쟁이란 큰 도박을 벌려 놓았다가 밑천도 못 찾게 된 후, 웽그리야와 애급에서 봉창을 해 보려구 했던 노릇이 거덜이 나자 씨리아에서 또 봉창을 해 보려던 게 아닌가요. 거기서는 투전판을 채 벌려 놓기도 전에 밑천을 털고 일어 섰고, 다음엔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봉창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이 뒤틀려 나가게 되니까 이번엔 레바논에서 봉창을 하려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국무성 관리가 되려면 우선 봉창을 할 때까지 투전장을 손에서 놓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마크야, 말을 삼가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이 〈봉창 철학〉을 리해하시지 못하는 걸 보면 기껏 해도 차관보까지도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닥쳐!》

점잖은 리챠드슨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는 뭐라고 꾸짖으려 했으나 적당한 말이 없든지 방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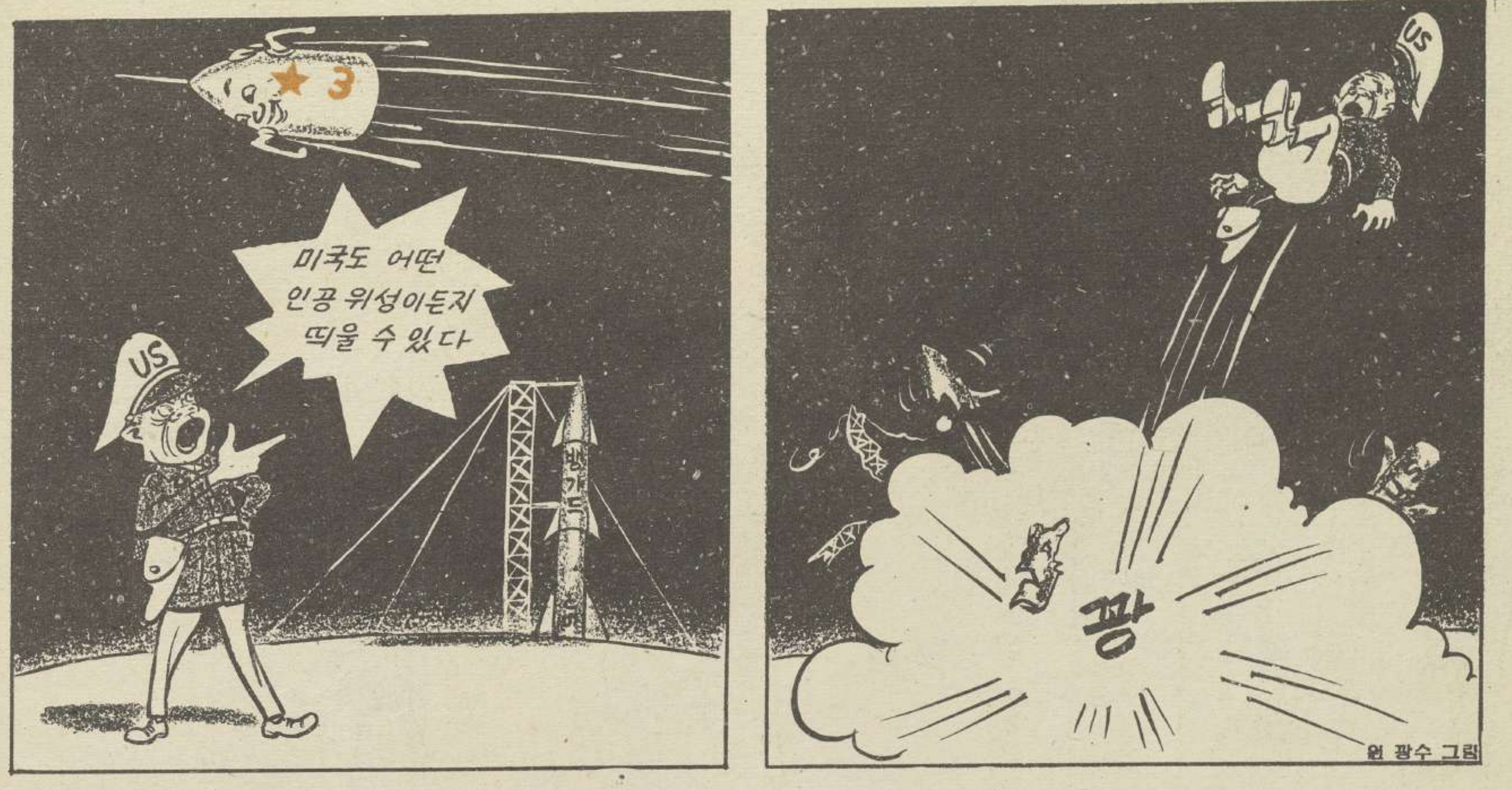
아버지의 이런 거동으로 미루어 마크는 저혼자 판단했다.

아마 레바논에서도 봉창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

허장 성세

아이젠하워는 《미국도 어떤 인공 위성이든지 띄울 수 있다》고 떠벌렸으나 미국은 중거리 탄도 로케트 발사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원 광수 그림

그건 우리에게도 진부하오

김 현석

6월에 들어 선 참인데 무더운 바람이 워싱톤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칵칵 숨이 막혀 들어 오는 것은 비단 무더운 바람 때문만은 아니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각하》를 위시하여 닉슨 덜레스의 심장은 몹시 뛰놀고 있었다.

후끈후끈 그들의 전신이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피할 길 없는 법칙적인 생리 현상이였다.

—우리의 집 뒤'뜰이라던 남아메리카에서까지 우리의 부대통령이 락하산 부대의 구원을 받아서야 탈출해 나올 수 있게 되였단 말이지, 창피가 문제가 아니라 때는 바야흐로 대아메리카 위급 존망지추로다—

안락 의자로부터 벌떡 일어 선 아이젠하워 병적으로 벨을 누른다.

이처럼 아이젠하워의 템포는 매우 급한 것이였으나 들어서는 비서의 템포는 매우 느리였다. 이 비서는 이미 아이젠하워의 련속적인 발작증에 습관이 되였다.

—또 발작이시군. 그렇지 않아도 녀로한 몸이신데—

비서의 표정은 자못 가엾어 하는 표정이였다.

《다들 부르시오!》

이리하여 잠시 후에 닉슨, 덜레스 등이 아이젠하워의 방으로 모여 들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란 말을 나도 모르는바 아니오. 그런데 문제는 아메리카가 졌다 이겼다가 아니라 련전련패인데 있는 것이오. 오 사랑하는 나의 친우들! 유쾌롭지 못한 회상은 걷어 치웁시다. 지나간 이야기는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묻어 버립시다. 앞으로의 련전련승만 생각합시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총명과 지혜를 총동원 합시다.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공산당 대표들이 모쓰크바에 모였다지요. 이 번엔 정말 멋있게 녹아웃시킵시다.》

간절한 동정으로 애원하다 싶이 하는 아이젠하워의 눈'길에 합류하면서 덜레스는 례의 과대망상가로서의 락천성으로 전신을 흔들며 신념에 차 말하는 것이였다.

《대통령 각하! 념려 없습니다. 아메리카의 전체 마이크는 목청을 돋구어 세계 공산 진영의 균렬을 웨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나 닉슨이나 내심으로는—또 그 식이 그 식이로구나—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들로부터 기상 천외의 묘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여서 덜레스의 장담에 고개를 끄덕이는 수 밖에 없는 노릇이였다.

이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 갔다.

아이젠하워가 안락 의자에서 또다시 벌떡 일어 서고 신경질적으로 벨을 누르고 비서가 들어 오고 하는 식의 최근 년간 여러 천번 거듭된 동일한 순서에 따라 이 날도 아이젠하워 방에 닉슨 덜레스 등이 모였다.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선언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고수할 데 대한 일치한 목소리를 높였으니 아이젠하워 닉슨 덜레스 등이 당황망조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였다.

《미스터 덜레스! 당신이 장담은 하였지만 모쓰크바에선 세계 공산 진영의 균렬이 발생하지 않았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디 설명해 보시오. 사태는 념려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매우 념려 됩니다. 미스터 덜레스! 어서 말해 보시오》

덜레스의 대답을 들어 보았댔자 시원할 것이 없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어쨌든 무슨 대답이든 아니 듣고는 배겨 내지 못할 아이젠하워의 안타까운 심정이였다.

《대통령 각하! 념려 없습니다. 아메리카의 전체 마이크는 목청을 돋구어 세계 공산 진영은 또 다시 선전 공세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우리 대아메리카의 국무장관의 지혜가 그래 요것 뿐이란 말인가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이 또다시 병력을 축소하는 등 실지 행동으로 세계 면전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선전이다》이 한 마디로 그래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아이젠하워나 닉슨이나 자포자기적인 심경 속에 휩싸이고 말았다.

《또 그 식이오, 그건 우리에게도 이미 진부해졌소이다.》

이렇게 한 마디를 배앝은 아이젠하워는 그 빼빼 마르고 긴 두 다리를 내동댕이 치다 싶이 안락 의자에 펄썩 주저 앉고 말았다. 닉슨은 아직도 그 모멸의 감촉이 가시어지지 않은 두 뺨을 문지르고 있었다.

이 백악관 《신사》들의 전신은 오한이 날 지경으로 고열이 지배하고 있었다. 숨이 맥힐 지경으로 확확 달아 오르고 있었다.

여전히 워싱톤 거리를 무더운 열풍이 휩쓸고 있었다. 백악관 옥상의 성조기도 맥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교훈을 찾지 못한다

리 춘수 그림

수정 주의

박 승히 그림

《번영하는》 아메리카 이모저모

로 철

미국 신문들에 게재된 기사들 중에서 미국의 세태를 엿볼 수 있는 몇가지 토막 소식들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간첩 모집 광고

《통신 간첩 강좌 수강생을 모집함. 필수 과목 : 전화 절취 청취법, 가택 수색법, 비밀 록음법, 현미 촬영법, 공중 촬영법, 서신 절취 해독법, 원거리 감시 및 미행법, 독약 사용법.

통신 학비 : 22딸라 50쎈트 (즉 다른 모든 통신 간첩 강좌들보다 10~12% 눅음)

통신처 : 와싱톤 15호구 734번지. 키리르 캄파니》

2월 18일부 《뉴욕 • 월드 • 텔레그람 앤드 • 썬》지에서

위성 보살

《얼마 전에 인공 지구 위성을 하늘로 띄워 보낸 〃뱅가드〃 로켓트(*)에는 쎈트 • 크리스토브의 신상을 색인 부작이 붙여 있었는바 이것은 위성의 신성한 향도자의 역할을 놀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쎈트 • 크리스토브 신은 려행자를 보호하는 신이다.

해군성 대변인은 로켓트 제조업자들의 제의를 접수하고 앞으로도 해군성이 띄워 보낼 모든 로켓트의 시험 시에는 반드시 이 부작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3월 22일부 《크리스챤 • 싸이엔스 • 모니터》지에서

* 1958년 1.5키로그람 밖에 되지 않는 위성을 띄운 로켓트.

미국식 문화의 《번영》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개선 전국 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텔레비죤 방송 프로그람 편성에 있어서 살인 폭행 등을 주제로 한 것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다만 5월에만 하여도 첫 1주일 간에 방송한 7개의 텔레비죤 방송국 프로그람 중 모살 사건이 161건, 〃정당한 살인〃 사건이 60건, 자살 사건이 2건, 모살 기도 사건이 192건이였고 그 외에 략탈을 주제로 한 것이 83건, 결박하고 린치하는 것을 취급한 것이 22건, 폭발 사건 6건, 방화 사건이 2건이나 되였다》

6월 3일부 《유나이테트 • 스테이트 • 뉴쓰 • 앤드 • 월드 • 리포드》지에서

《세계 제일》

《최근 아메리카 제일의 명단 내용은 날로 풍부화되여 가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부채액에서 세계 제 1위 : 1천 5백 딸라 44쎈트 (5월말 현재)

애완용 개 전용 려관 수에서 세계 제 1위 : 32개소 (4월 15일 현재)

살인 강도 강간 건수에서 세계 제 1위 : 5월 중에 12만 7천 6백 3건 (그 중 미성년들에 의한 것 5만 2천 3백 66건)

자동차 사고 건수에서 세계 제 1위 : 5월 중에 뉴욕시에서만 3천 7백 60 여 건

진정제, 수면제 등 마약의 소비량에 있어서 세계 제 1위 : 5월 중 판매액 1억 5천만 딸라 이상》

6월 5일부 《아메리칸 • 가디안》지에서

렴가 판매

조선에서 범죄적인 전쟁을 도발한 원흉의 하나인 전 대통령 트루맨은 최근에 《회상록》을 발표했다

《하리 • 트루맨의 저서 〃회상록〃이 갓 출판되였을 때 그의 정가는 10딸라였다. 그러나 지금 워싱톤의 서점들에서는 그 책 우에 1딸라 96쎈트를 붙이고 있다. 그래도 금년 1•4분기에 그것은 모두 3부 밖에 팔리지 않았다》

5월 29일부 《유나이테드 • 스테이트 • 뉴쓰 • 앤드 • 월드 • 리포드》지에서

《절대 비밀》 문건

《스미슨 천체 물리학 연구소 소장의 부인 에프 • 에르 • 위블이 어제 기자에게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의 남편 (하프 대학의 저명한 천문 학자)은 1946년에 자기의 과학 론문을 칼리포니야 주의 해당한 과학 연구 기관에 보낸 일이 있다 한다. 그 후 그 론문 중의 어떤 자료를 다시 리용할 필요가 생겨서 돌려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론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글쪽지 한 장을 받게 되였다.

《그 론문은 이미 비미 활동 조사 위원회에 의하여 절대 비밀 문건으로 지정되였습니다. 비미 활동 조사 위원회에서는 아메리카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을 충분히 믿을만 한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당신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라는 지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5월 17일부 (쎈트 • 루이 포스트)지에서

히스테리 환자들

《친애하는 독자들! 만일 미국이 불의의 원자탄 공격을 받는다 하여도 당신들은 걱정하실 것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체신국은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강구중에 있기 때문이다. 즉 체신국장 싸머필드 씨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의 사진을 찍은 엽서 1억 2천 5백만 매를 인쇄하여 두기 위하여 이미 25만 딸라가 배당되였다고 한다. 일단 유사 시에 주민들은 엽서에 자기 이름과 또한 자기가 피신하고 있는 곳을 기입한다. 이것은 두 가지의 우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원자 전쟁 하에서도 우편 왕래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또한 아무리 산산히 헤여졌다 하더라도 능히 자기 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당신들을 도와 주게 될 것이다》

미국식 《번영》의 상징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쇠퇴에 비관하는 것은 아메리카적 량심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번영을 믿어야 한다. 그 번영은 무엇에 표현되고 있는가?

a) 간판업자들의 미증유의 번영에.

그들은 《휴업》 《로동자를 모집하지 않음》 《문 앞에 줄 지어서는 것을 엄금함》 《이 벤취에서 자는 자는 엄벌에 처함》이라는 광고 간판, 게시판, 패쪽들을 만들기에 불민 불휴로 일하고 있다.

b) 전당포 업자들의 호경기에.

시카고에서만 하여도 4월 한 달 동안에 전당포가 12집이나 더 늘었다.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동무들》 회창군 보건부장 동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위생 문화 사업은 다만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가 아니라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부문을 담당한 동무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군중을 동원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평남 회창군 보건 위생 부문 일'군들의 회의는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군 보건부장의 열렬한 연설로서 끝났다.

×

군 회의에 참가하였던 지도원들은 각기 자기 담당 구역으로 나아갔다. 위생 지도원, 위생 반장들이 모였다. 군 지도원들은 강조하였다. 《위생 문화 사업은 다만 일시적 깜빠니야 사업으로가 아니라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오직 동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우리는 곧 사업에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

위생 지도원, 위생 반장은 제각기 자기 조합, 자기 부락, 반으로 돌아 갔습니다. 조합원들이 혹은 인민반원들이 모였습니다. 《위생 문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조합원들도, 인민반원들도 제각기 자기 조합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군 보건부에서는 많은 회의를 조직은 했으나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회의에는 참가했건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갈바를 몰랐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였다.

△ 회창읍 편의시설 리발소에서

많은 손님들이 리발을 하려 옵니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 손님들이 수건을 찾을 때면 리발사는 대개는 남이 쓰다 놓은 끌쩍한 수건을 집어 준다.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손님에게 끌쩍한 수건을 그대로 내밀어 주면서 하는 말이…〈다음부터는 수건을 가지고 오시는게 좋지요〉

이렇듯 부족되는 수건을 가추어서 봉사성을 높일 대신에 오히려 봉사성을 손님에게서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소독기를 두고도 리발 기계를 소독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물'독에는 갈아앉은 흙앙그미가 점점 두터워 만 가는데… 그러니 분기마다 받아야 하는 종업원 건강 진단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는 일.

이곳 일'군들도 위생 문화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회의에는 참가했으련만…

△회창읍 농산물 상점에서.

원래 이 상점은 농산물만을 취급해 왔었는데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상점 한편에 선술집을 차려 놓았다.

그래서 이 상점은 농산물 매매와 선술집을 겸하게 되였고, 이 선술집은 이 근방 근로자들에게 있어 그 인기가 대단하다. 그런즉 이 선술집은 앞으로도 꼭 있어야 하는것, 그렇다면, 선술집과 상점 매매사이는 응당 벽이나 판자로 막아야 할터인데, 서로 통한채로 있기 때문에 술내요, 술안주내요, 탄내, 게다가 탄 몬지, 이러한 일들로 하여 상점을 찾아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때로는 불쾌한 감을 주게 하며 매매 물품들에 몬지가 싸이게 된다. 그렇지만 이 상점 일'군들은 두가지 일이 모두 바빠서인지 매대와 선술집 사이를 막을 데 대해서도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모양이다. 파리는 윙윙, 매대에는 몬지, 빈상자는 상점 밖에 되는대로 싸아 올려져 있고,

이 상점 일'군들도 회의에는 참가했으련만…

△회창 광산 유치원에서

탁아소나 유치원이라면 누구던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깨끗하고 주위 환경이 더 아름답고 위생적으로 꾸려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상식이다. 그런데 이곳 회창 광산 유치원만은 이 보통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유치원 한 모퉁이에는 책상 걸상이 어지럽게 되는대로 쌓여져 있는가 하면, 주위 환경의 청소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리도 자주 닦지 않는 듯 얼룩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시에 창고에라도 안내를 받은 감을 느끼게 되였다.

—바로 여기가 광산 유치원입니다. 저기 애들이 오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방으로 가까히 닥아 가 보았으나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웁다 하여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맨 방에 애들이 되는대로 가로 세로 무질서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고, 파리는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여진 유리한 조건을 충분하게 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고 아름답게 또 모든것을 질서있게 생활하도록 교양하는 곳이 유치원이라면 이곳 일'군들의 사상 관점부터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유치원 일'군들도 위생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회의에는 참가 했으련만…

×

이러한 사실들이 있건만 군 보건부장 동지는 자기의 《열렬한》연설이 하부에까지 침투되여 사업이 잘 되는 줄만 알고 계시는지…

김 상 애

영업 정지다…

박 승히 그림

보고도 못 본체

리 영춘 그림

렬차에서

—다음 멎는 비는 어데가요?
—정거장이지요

청진 렬차구 접객 부문 일부 일'군들 속에는 려객들에 대한 봉사성이 낮으며 묻는 말에도 친절히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송 용남 그림

보다못해 마네낑이

일부 판매원들은 아직도 손님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리 영춘 그림

탐조등

식료품 상점에서

서구역 상흥동 식료품 상점으로 한 아주머니가 김치'감을 사려 왔다. 그러나 상점에는 배추 하나 뿐이고 쥐무며 파, 고추 등 양념'감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점장이 매대에 나타났다. 아주머니는 점장에게 물었다.

〈점장님네도 배추를 여기서 사 가십니까?〉

〈예〉

〈파와 고추 쥐무는 어디서 삽니까?〉

〈그건 시장에 가 사지요〉

〈그런 것들두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 점장님네 아주머니도 김치'감을 한군데서 사갈 수 있구 편리하지 않아요?〉

38호 렬차에서

5월 30일 평양—라진행 38호 렬차에 증산으로 가는 한 승객이 탔다. 보매 승객은 이 행로가 처음인 모양인데 렬차원의 안내까지 없어 몹시 불안한 기색이다. 그는 렬차원이 오면 물어 보려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참 후에야 아직 잠에서 채 깨지 않은 렬차원이 객실에 나타났다. 승객은 지체 없이 물었다.

〈증산역에서 내릴려면 몇 정거점만에 내려야 되우?〉

그러나 렬차원 김 사길은 지금까지 승무원실에서 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역을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었다.

〈지금 지난 역이 무슨 역입니까?〉

그러나 승객은 그 역명도 알지 못했다. 렬차원은 어디엔가 뛰여 갔다 오더니

〈지나 왔구만요! 지금 지나온 역이 증산역인데요〉

〈지나 왔어요? 야단 났군, 늘 이렇게 지나온 다음에 안내를 하군 하나요?〉

수화물 취급에서

한 사람이 궤짝을 메고 평양역 화물 취급소로 찾아왔다. 그 사람은 마침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 화물 취급하는 데가 어딥니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접수시키면 언제쯤 발송될까요?〉

〈수화물이 고거 답니까?〉

〈예〉

〈그럼 좀 오래 걸리겠군요〉

〈왜요?〉

〈이 역에선 수'자부터 없애노라고 큰 짐부터 우선 실으니까요〉

〈이건 바쁜건데 야단 났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천성까지요〉

〈허!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구만요〉

〈왜요??〉

〈천성은 중간 역이기 때문에 중간 차에 실어야 겠는데 이 역에서는 중간 차는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중간 역에 가는 짐을 실으면 매 역마다 서서 화물을 부리워야 하기 때문에 매 역에서 화물을 부리울 수 있게 화차에 통로를 내고 짐을 실어야 하니 역의 화물을 빨리 없앨 수 없다고 우선 원산, 함흥, 청진, 남양 등으로 가는 화물을 합적차에다 실어 보내고 나서야 중간 차에다 중간역에 가는 화물을 실어 보낸답니다. 나도 유지의 도착역이 불행하게도 중간역(덕원)이였기 때문에 20일 만에야 실어 보냈답니다.〉

물론 화물이 많이 오긴 하지만 사업을 면밀히 조직하면 훨씬 빠른 기일 내에 화물들을 발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역 화물 취급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의 부족으로 수화물 발송을 지연시키고 있다.

내 담임이 아니니

×× 고급 중학교 1학년 담임 교원 송 덕운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 가다가 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가 자기 학교 학생이기 때문이다 (혹시…?) 그러나 곧 안심이 되였다. 다행이도 자기 담임한 학생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 반 학생이 아닌데)하고 못본척 지나가 버렸다.

며칠 후에 송 덕운 교원은 교장 선생이 불러서 갔다.

〈어제 집으로 돌아 가다가 선생이 담임한 반의 정진현이란 학생이 담밸 피우는 걸 봤소. 그래서 내가 욕은 해 봤지만 학생들을 좀 잘 교양해야겠소〉

송 덕운 교원은 교장 선생께서 꾸지람을 듣고 돌아오면서도 교장 선생의 말이 좀체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 학생은 결코 그런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을 아주 순진한 학생이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이상 그는 정 진현을 불렀다. 그 학생은 자기의 불량 행위를 자인하고 요즘 2학년의 김 진국이란 학생하고 함께 다니면서 담배를 배우게 되였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송 덕운 교원은 김 진국이란 학생을 좀 데려 오라고 했다. 김 진국이란 학생이 들어 왔다.

송 덕운 교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반 학생에게 나쁜 버릇을 가르친 학생이 바로 자기가 전에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둔 그 학생이 아닌가!

학생들이 보는 것

선생이 학생을 보고 물었다.

〈넌 왜 손톱을 깎지 않니?〉

학생은 머리를 수구리고 말이 없다.

그런데 머리는 수그리고 있지만 눈은 내려 뜨지 않고 앞을 쳐다 보고 있다. 아니 쳐다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유심히 보고 있다.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가고 선생은 그의 시선을 따라 보았다. 그 학생은 자기의 손을 보고 있었다. 순간 교원은 그 학생이 자기의 손톱이 긴 것을 보고 있음을 깨닫자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가져갔다. 뒤짐을 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선생은 학생에게 손톱을 깎으라 말을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말해야 교양이 되지 않겠기 때문에.

리 운봉

공연한 근심을

전체 인민이 위생 문화 사업에 나선지 이미 두 달이 가까워 오는 어느날 강원도 이천군에서는 계, 가재, 골뱅이, 쥐, 파리, 모기 등등이 한 자리에 모였지요.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하자는 구호가 공화국 전 지역에 울리자 그 첫계단 사업으로 계, 가재, 골뱅이, 쥐, 파리, 모기 등등의 박멸부터 시작하여 주위 환경의 청소 미화 변소 우물의 개조 등의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였지요. 그 때에는 이천군 내의 계, 가재, 파리 등등도 상당히 당황해서 이제는 다 죽은 목숨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처분만 기다릴 수 밖에 딴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거이 되여 가는 오늘까지도 아무러한 변동도 생기지 않고 보니 어찌된 셈인지 하도 이상해서 오늘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였다고 합니다. 우선 파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요, 나는 군 기관들을 몇 바퀴 돌아 왔는데 군급 지도 일'군들의 사무실에도 파리는 그대로 웅성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또 이천읍 소재지만 보드라도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돼지우리가 100 여 개나 이전과 같이 그대로 있고 더우기 소비 조합 식당이나 려관에서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군 보건 부장을 비롯해서 지도원들은 모두 다른 일이 바빠서 동원되였다나요.

위생 방역소에 들려 봐도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한즉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가 일어 섰습니다.

《우리 이천군은 다른 군과도 달리 디스트마가 있는 곳이라 결정적 대책이 세워질 줄 알았었지요, 더군다나 가물과의 투쟁을 하느라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개천들을 돌린다, 우물들을 퍼낸다 야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모두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두 농산 사업이 바쁘다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관심도 돌려지지 않았답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이 잠간 동안에 학봉리 한 우물에서 가재를 520마리나 잡았다고 하지만 군 예방소, 치료소도 문을 잠그고 딴 일을 하려 다니니 우리도 별로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쥐, 모기 등등도 제각기 한 마디씩 했지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천군에서는 한가할 때에나 위생 사업이 시작될듯한데 아직까지 군사업이 한가해져 본 기억이 없으니 공연히 겁을 먹지 말고 안심하고 살수 있어》

김 상 애

보기 힘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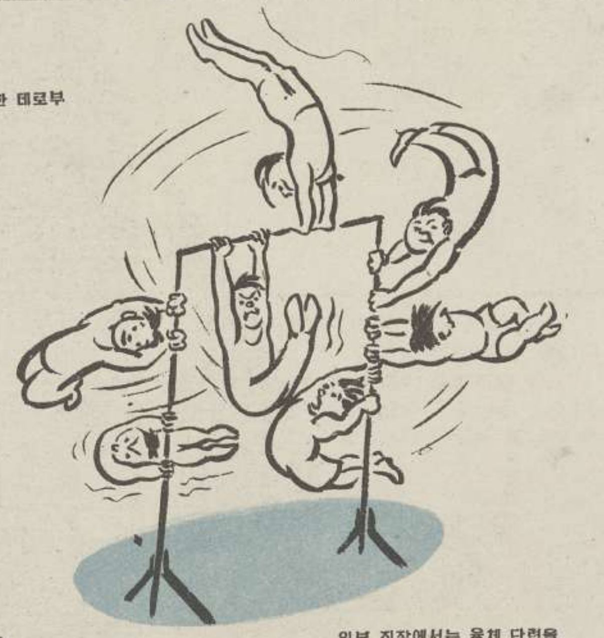
평북도 구성읍 허 성팔 그림

—빨리 쓰시요. 이게 뭐요?
—지금 쓸지 안나요

—저 녀잔 자네 안해가 종인가?
—하하…자네 미쳤나. 종이 어데 있나 지금 종이…

이런 것은 고칩시다

일부 선수들은 육체의 전면적 단련이 부족한 데로부터 육체 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직장에서는 육체 단련을 위한 설비가 부족되고 있다.

심판—동무! 힘껏 차지 마시요 그 뽈은 공화 피혁 뽈이요!

최 영근 그림

언제부터 친했다고

백 인균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8. 10 ㄱ—74575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8. 15 값(50원)

멸망을 재촉할 뿐

홍 종호 그림

8034 ХВАЛ
АМЕРИКАНСКОЕ ПОСОЛЬСТВ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